



[산업] 현대차-SK이노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맞춘 08



[라이프] 인테리어 관심 급증 명품가구로 카페같은 집 만든다 11



“IMF때도 버텼지만... 코로나 불황은 역대 최악” ‘지하상가 대명사’ 고투몰, 생존위한 ‘눈물의 고군분투’

되살아나는 서울의 그늘

강남지하상가 ‘고투몰’

강남지하상가는 값싸고 질 좋은 의류가 많기로 소문나 패션피플들의 쇼핑 명소로 손꼽힌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위치해 있어 ‘고터’로도 불린다.

강남터미널지하상가를 운영하던 상인들은 2011년 주식회사 고투몰(구 주식회사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을 설립하고 이듬해 6월 서초구 잠원동(신반포로 200)에 있던 기존 상가를 전면 리모델링, 고투몰의 문을 열었다.

고투몰은 총 길이 880m, 면적 3만1566㎡ 규모이며 중앙광장(고투존), 동편광장(이스트존), 서편광장(웨스트존)과 같은 이벤트 광장과 쉽터가 조성됐다. 상가 620여개가 들어서 있으며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침구, 수예, 그릇, 꽃(조화, 생화) 등 다양한 상품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반나절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왔다”

천만시민 멈춤 주간 시행 9일차를 맞은 지난 7일 고투몰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에서 내려서 8번 출구 쪽으로 약 8분을 걸었더니 포석정 형태를 한 쉽터가 나왔다. 과거 신라 귀족들이 물줄기 돌레에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잔을 띄우고 연회를 벌였던 것처럼 시민들은 산수경석과 분수가 어우러진 녹지 공간에서 휴식을 즐겼다. 중앙광장의 양 옆엔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의류·잡화 매장이 즐비했다.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옷가지들과 대비되게 이날 고투몰에서 만난 상인들의 낮빛은 태풍 하이선이 물고 온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강남지하상가 일대에서 15년간 옷집을 운영해왔다는 가게 주인은 “내가 단골이 많은 사람인데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엔 전멸이다”면서 “매출이 몇 퍼센트 줄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냥 빵(0)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하루종일 여기에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서 “옷을 안 팔아도 좋으니 손님들에게 입혀보라고 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상인들은 동대문, 영등포, 명동 상권이 다 죽어도 강남은 안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반나절 넘게 개시도 못한 집이 수두룩 뻘뻘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님 없는 양말 가게를 지키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침체고 요즘은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면서 “하루 알바 시간이 원래 8시간인데 5시간으로 짧아져 수입이 3분의 1 줄어 근처 카페에서 매일 사 먹던 커피도 안마시고 지금처럼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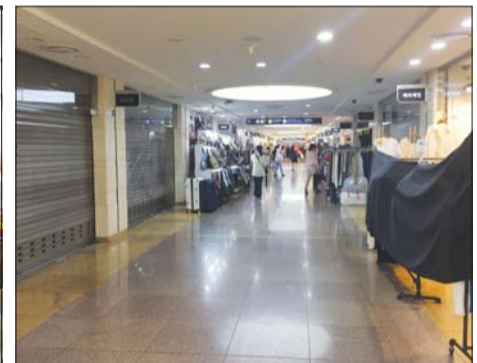
지난 7일 찾은 강남지하상가 ‘고투몰’.



고투몰의 한 매장 앞에 ‘코로나 확산으로 생존 위협 심각하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서울시는 대부분을 전면 면제하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고투몰의 한 매장 앞에 ‘코로나 확산으로 생존 위협 심각하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서울시는 대부분을 전면 면제하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문 닫은 고투몰 매장들. /김현정 기자

고속터미널역 쇼핑 명소 ‘고투몰’ 의류·소품 등 620여개 상가 몰려

광복절 집회 이후 찾는 손님 없어 반나절 넘게 개시 못한 곳 수두룩

상인들, 서울시에 대부분 면제 요구 시 관계자, 추가 지원 관련논의 중

고 1만2000원짜리를 9000원에 줘도 손님들이 카드를 내는데 이러면 완전 손해가 난다”면서 “사장님 보기 민망해 죽겠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대부분 면제해달라”

고속터미널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적었다. 가게 유리창에는 ‘빛으로 대부분 내는 상인들, 생존지원 대부분 전면 면제!’, ‘죽어가는 상인들을 살려달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텅 빈 상가, 상인들은 아사 직전!’, ‘코로나 종식 때까지 서울시는 대부분을 전면 면제하라!’ 등 사생결단을 암시하는 글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임대료 200만원에 관리비 20~30만원이 매달 나간다는 고투몰 상인은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는 서울시에서 이걸 다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하루에 5만원도 못 파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냐”고 반문했다.

강남지하상가 초창기 멤버라는 한 옷가게 주인은 “IMF 때도 이정돈 아니었다. 지금이 역대 최악이다”면서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대부분 면제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가게 문 닫고 쫓아갈 것이다”고 으름장을 놔다.

이달 7일 오후 3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강남지하상가를 서성였지만 하얀색 봉투

가운데 주황색 로고가 박힌 ‘고투몰’ 비닐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시민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운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이 물건을 만지작거리면 ‘반 값에 해주겠다’, ‘사이즈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와서 걸쳐나 보라’며 적극적으로 고객 행위를 했지만 허탕치기 일쑤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어서 대부분(임대료) 자체가 다른 곳의 6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면서 “코로나 이후 시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서울시민 모두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만 지원해달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등의 임대료를 7월까지 6개월간 50% 낮춰주고 공용관리비도 전액 감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방침에 의하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고 9월 2일부터 지하상가 임대료와 공용 관리비를 원래대로 받기로 돼 있다”면서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며 의사결정이 정리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이달 7일 오후 고투몰 상가 곳곳에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다.